

기록물을 통해서 본 용산가족공원 조성 과정과 의미[†]

최혜영*, 이상민**, 길지혜***, 김정화****, 박희성*****, 서영애*****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부교수,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상임간사,

****네바다대학교 라스베이거스 건축대학 조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기술사사무소 이수 소장

1. 서론

용산공원 프로젝트는 서울 중심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후 반환되는 약 300헥타르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되었으나 지금까지 부지의 일부가 대한민국 정부로 반환되었을 뿐, 공원 조성은 여전히 계획 및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반환받은 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공원 조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장으로 삼고자 했으며 2020년 7월, 그 첫 걸음으로 미군기지의 동남단에 위치한 장교숙소 5단지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장교숙소 5단지의 개방이 용산 미군 기지의 일부가 대중에게 공개된 첫 사례로 보았으며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였다. 그러나 서울기록원에 보관된 공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90년 한미 협상에 따라 기지의 일부(미8군 골프장 부지)가 이미 대한민국 정부로 반환된 바 있으며 1992년 이곳에 용산가족공원이 조성되었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 내로 이전하면서 용산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정부는 반환받은 부지의 일부를 도시의 공공 공간으로 임시 개장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용산가족공원 또한 임시 공원으로 개장된 점에 주목하며, 서울시 공공 기록물을 통해 용산가족공원의 조성 과정을 살펴 향후 용산공원 조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용산공원 및 용산가족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1989년 말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으로 용산가족공원의 면적이 축소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 1997년까지로 삼았다. 이 사이 생산된 서울시 공공 기록물 중 2020년 4월 기준, 서울기록원에 이관된 공공 기록물 가운데 제목에 ‘공원’이 들어간 기록물 759,836건을 우선 도출하였다. 이 중 ‘용산공원’과 ‘용산가족공원’의 키워드로 검색되는 301개의 기록건(기록철 28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기록물 53건을 최종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기록물을 살펴본 결과 용산가족공원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용산가족공원은 근린공원의 성격을 넘어서 용산미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첫 번째 사례이자, 전체 용산공원 조성 사업 중 1단계 공원화 사업에 해당된다. 기록에 따르면 1989년 5월 2일, 한미 간 미8군 골프장을 1990년 중 조기 반환할 것에 합의했다(서울특별시, 1989). 전체 기지가 반환되려면 1990년대 중반은 되어야 했기에 단계별로 개발하기로 하고 1단계 사업을 미8군 골프장 부지의 공원화로 삼았다. 따라서 미8군 기지 전체에 대한 공원 계획 수립과 더불어, 미8군 기지 공원화 사업의 마중물격인 미8군 골프장 부지에 대한 계획 또한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당시 대통령 지시 사항을 살펴보면 골프장지역의 공원화에 대해 언급하며 “짜집기식이 아니라 전체 계획과 조화를 이뤄 건설할 것”을 주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1989; 김윤순, 1989). 대통령의 요구대로 골프장의 공원화 계획은 전체 부지의 공원 계획에서 수립한 기본 구상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이로써 ‘가족공원’ 계획이 설계 공모를 통해 마련되었다.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한 ‘기술 용역 발주 계획서’에서도 용산가족공원을 “전체 공원화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전체 공원의 성공을 이끌어갈 시금석”으로 언급하고 있다(서울특별시, 1990).

둘째, 용산가족공원의 조성 과정은 현재의 공원 조성 과정에 교훈을 준다. 용산가족공원 조성 사업은 1989년에서 1990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지만 1991년 초반에 들어서 기조에 변화가 생겨났다. 정부부처, 서울시, 주한미군 간 부지 반환 및 공원 조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가 지속하여 발생해 왔는데 크게 세 가지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먼저, 미군이 원래 반환하기로 한 미8군 골프장 면적에서 계속 사용을 요청하는 부지가 생겨나 총 반환 면적이 줄어들었다(서울특별시, 1996). 둘째, 계속 사용 시설 중 오수처리장의 경우 이전을 하게 되면 한국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서울특별시, 1991a). 즉, 공원 사용에 방해가 되는 미군 시설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했다. 한국 정부에서 용산공원을 국가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공원 조성 과정에 변화를 가져왔다(서울특별시, 1991b). 주무부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설계안을 완성하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공원 조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1992년 서울시는 기존 미8군 골프장 시설을 최소한으로 보완해 ‘임시 공원’으로 용산가족공원을 조성, 개장하였다(서울특별시, 1991c; 1991d). 용산 미8군 기지 전체의 공원화 과정에서 첫 번째로 개

[†]본 발표 논문은 서울기록원의 “2021년 소장기록 정리기술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 연구 내용의 일부로, The 58th IFLA World Congress Oral Presentation “The Importance of Archiving: Yongsan Family Park as the First Implementation of Yongsan Park”를 보완하여 작성함.

장된 공원이라는 상징성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용산가족공원은 조성 당시나 이후 과정에서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채 도시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겨졌다. 이는 1993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이 들어설 부지를 물색했을 때, 도시의 유휴공간으로 인식되며 박물관 건립의 적지로 낙점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결국 임시 공원으로 개장되었을 당시의 면적(297,000제곱미터)에서 약 25%만 현재의 용산가족공원으로 남겨졌다(서울특별시 1997).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군 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법적 근거는 확보했지만 ‘임시 공원’, ‘임시 개장’의 상태는 여러 단체나 이익 집단이 이곳을 손쉽게 점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케 한다. 지금까지 정치권, 민간단체, 정부부처를 막론하고 임대주택 조성, 야구장 건설, 박물관 콤플렉스 조성 계획 등 공간 점유에 대한 요청과 이로 인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장기적 시각을 바탕으로 공원 조성 과정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공원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파악했다. 이는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같이 장기간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더욱 요구된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 관련 부서, 실무자, 전문가는 모두 세대교체되었다. 따라서 조성 과정의 기록이 소실되었거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과거에 발생했던 오류를 알 수 없으며, 특히 사회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업에서 이를 답습할 확률이 높다. 반대로 조성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다면 현재의 조성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원 아카이빙을 통해 기록된 공원 조성, 관리 운영상의 자료, 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는 공원 설계안의 변화상 등에 관한 다양한 기록물은 그 자체로 공원의 콘텐츠가 된다.¹⁾역사적 기록들을 바탕으로 도시 공원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공원 조성 과정의 특성상 전문가나 전문 업체 등 민간의 영역이 공기관 등 공공의 영역과 협업하여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민간의 영역에도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산되는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이다. 민간 생산 자료를 살피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 기록물의 전수 조사를 통해 용산가족공원 조성 과정에서 논의된 도시계획의 중요 이슈를 발굴한 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용산가족공원과 용산공원의 연계성을 살폈다는 점, 현재 진행 중인 용산공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공원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김윤순(1989) 경향신문 1989년 5월 12일자, 3면.
2. 서울특별시(1989) 용산 미8군 이적지 공원화계획 추진내용 통보, 서울기록원 소장.
3. 서울특별시(1990) 용산 가족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 서울기록원 소장.
4. 서울특별시(1991a) 1991년 5월 30일 공원과 담당관인 지방임업기사 박인재의 출장복명서, 서울기록원 소장.
5. 서울특별시(1991b) 6월 14일 용산골프장부지 공원과 관련 회의 결과 보고, 서울기록원 소장.
6. 서울특별시(1991c) 용산가족공원 조성계획(안), 서울기록원 소장.
7. 서울특별시(1991d) 용산가족공원간이공사 공사설명서, 서울기록원 소장.
8. 서울기록원(1993) 종합계획도, 서울기록원 소장.
9. 서울특별시(1996) 1993년 10월 용산계획위원회 회의자료, 서울기록원 소장.
10. 서울특별시(1997) 용산가족공원 이용제한지역 위치도.

1) 1990년 11월, ‘용산가족공원 기본계획 현상설계 공모’에서 당선된 (주)한림환경엔지니어링의 설계안은 주요 도로로 삼천리로를 제안하였다. 이 길을 따라 걸으며 한국의 금수강산 - 바다, 해안, 농촌, 산지 등 - 을 추상적으로 압축한 경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7개의 마당과 1개의 연못이 팔도강산을 상징하는 장치였다. 2012년 ‘용산공원 설계 국제 공모전’의 당선작인 ‘미래를 지향하는 치유의 공원’에서도 ‘삼천리금수강산’을 용산공원의 주요 설계 개념으로 제안하였다. 추상적 개념은 비슷하지만 후자의 경우 산과 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한국의 여러 경관을 물리적으로 재현하고자 한 점에서 두 안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원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